

다카네초 신메이샤 신사의 가구라

시지정 문화재(무형민속)

1995년 6월 26일 지정

전승자: 다카네초 신메이샤 신사 가구라 악부

이 가구라는 메이지시대 초기에 가자하야(가시와시, 구 쇼난마치)의 쓰카자키 신메이샤 신사로부터 배웠다고 알려져 왔지만 “역대 가구라 악부 명부”가 발견되어 그 전승이 증명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최초의 봉납은 1873년에 거행되었다.

1월 1일(오전), 5월 1일(밤), 10월 15일의 예제(밤)는 경내의 가구라전에서 봉납된다. 1월 1일 오후는 후나바시 대신궁에서, 10월 24일 밤에는 다카네초 아키바 신사의 예제에서도 봉납된다. 가구라를 전승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카네초 신메이샤 신사 가구라 악부 사람들이며, 현지 다카네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14개 춤이다.

①미코마이 춤, ②사루타히코노미코토마이 춤, ③사사마이 춤, ④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마이 춤, ⑤우즈메노마이 춤, ⑥쓰루기우치노마이 춤, ⑦다마토리노마이 춤, ⑧오로치노마이 춤, ⑨신메이노마이 춤, ⑩에비스마이 춤, ⑪덴코노마이 춤, ⑫오키나마이 춤, ⑬기온마이 춤, ⑭아마노이와토마이 춤.

이 중에서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마이 춤과 오로치노마이 춤은 시내에서는 다카네에서만 공연되고 있다. 또한 아마노이와토마이 춤은 10월 15일의 예제에서만 봉납되는 곡목이며, 이와토 장면에서 불켜지는 촛불을 임산부가 가지고 돌아가 출산 때 켜 두면 순산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시내의 다른 가구라에서는 가면을 쓰지 않고 춤을 추지만 이 가구라의 미코마이 춤은 가면을 쓰고 춤을 춘다. 사용하는 악기와 연주자의 인원은 오도(보우치다이코 북) 1명, 다이보시(시메다이코 북) 1명, 피리 3명이다.

신사 숲으로 둘러싸인 가구라전에서 밤에 펼쳐지는 가구라에는 엄숙한 분위기와 함께 오곡풍요와 마을의 안전을 기원해 온 다카네 사람들의 마음이 깃들여 있다.

후나바시시 교육위원회